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 인 경 · 장 근 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계하는 설명변인들에 대한 예비 연구로서, 사회인지 영역 및 자아발달과 사회성 발달 영역의 자기감찰(self-monitoring)과 내적 지향성(introspectiveness) 그리고 자아정체감 변인들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전체 30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와 더불어 자기 감찰 척도와 내적 지향성 척도 그리고 자아정체감 척도에 응답하게 했다. 그결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절정을 보여 기존의 발달 양식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기감찰에서는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Lapsley 등 (1988)의 결과를 반박하고 있고, 내적 지향성에서는 연령증가에 대해 정적 관계를 보여 Hansell(1986)의 가설을 기각했다. 자아정체감 변인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역할 혼미가 적고, 고립감이 적고 친밀감과 고립감의 해결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인지발달 영역을 넘어서 자아발달 및 사회성 발달 영역의 청소년기 발달과 업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많은 청소년기의 행동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인기있는 개념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은 Elkind(1967)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고양된 자의식, 패거리 짓기(crushes), 이상주의, 과시 행동(show-off), 위험 추구 행동, 수치심 및 수줍음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청소년기의 행동과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설명력을 지니는 반면 이론적 겸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의 발달(1979년 이후)이 더디

고, 뒤이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Lapsley, 1991).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행동의 증가 및 감소 현상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재고찰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출현과 쇠퇴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은 첫째,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배경으로 한 Elkind의 초기 가설(1967)과, 둘

제는 인지발달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인지 영역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이론적 배경을 확장시킨 Lapsley와 Murphy(1985)의 대인관계 이해과정의 발달에 관한 접근이다. 세째는 청소년기의 자기집중(self centeredness)과 자의식(self-consciousness)등의 자기중심적인 발달적 특징을 정신역동 내의 자아방어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Blos(1962)의 이차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과 관계된 설명 변인들로는 첫째, 개인 내적인 인지적 자원들로서 개인의 인지발달 수준과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사회적 역할 수용과 감정이입) 그리고 사회적 기술 등의 측면이고 둘째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성 측면으로서 사회성(sociability)과 개체성(individuality)간의 균형과 관련된 이차적 개별화의 정도(부모로 부터의 정서적 독립),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와 자신 간의 정서적 연결성과 분리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그리고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능력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 유지에 대한 경험적 이해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요인들, 특히 인지발달 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Elkind & Bowen, 1979 ; Enright, Shukla & Lapsley, 1979, 1980 ; Gray & Hudson, 1984 ; Riley, Adams & Nielson, 1984 ; Lapsley, Milstead, Quintana, Flannery & Buss, 1986 ; Lapsley, Jackson, Rice & Shadid, 1988 ; Lapsley, Fitzgerald, Rice & Jackson, 1989)이 주를 이루고, 사회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김인경, 1987 ; 김인경과 윤진, 1988 ; Adams & Jones, 1981, 1982 ; Anolik, 1981)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이론적 구

인의 겸중에 치중한 연구 접근에서 기인된 것이다. 하지만 각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회 환경 요인, 특히 대인관계의 속성이나 질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과 인지 영역이외의 발달적 변인들로서 자아발달, 사회성 발달 등의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이전의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예정된 성숙 개념에 따른 발달의 진행보다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전생애 발달에서 청소년 발달이 위치하는 전환기적 발달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 발달의 이해에 중요하다. 즉, 청소년기의 사춘기 신체변화(생물학적 요인)와 자아개념 및 정체감의 확립 등의 자아발달과정(심리역동적 요인) 그리고 부모와 또래 관계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또래 및 우정관계(환경적 요인)등의 청소년기 발달과제의 이행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하므로써, 청소년기의 전형적 행동적 특징을 설명하는 구인으로서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실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런 다차원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 발달의 특성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관점에서 접근해보기 위한 탐색적인 예비 연구로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 변인의 확대를 위해, 인지영역 이외의 변인들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Lapsley 등(1985) 이후에 제기된 자아중심성에 대한 사회인지적 입장의 연구(Lapsley, Jackson, Rice & Shadid, 1988)을 재검토하고 둘째는 인지영역 이외의 변인으로서 자아정체감 변인과 청소년기 자아중

심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1. 자기감찰(self-monitoring)과 관련성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사회인지적 입장에서 접근한 Lapsley, Jackson, Rice와 Shadid(1988)은 Snyder(1979, 1987)의 자기감찰(self-monitoring)경향성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이 공통된 생성과정을 갖는다고 보고,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발달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관찰하는 자기(self observing ego)현상에서 공통점을 찾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아에 대한 자기 반영적 검열(monitoring)을 할 때 한편으로는 자아에 대한 청중(audience)의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타인들”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청중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높은 자기감찰 경향을 지닌 사람들의 극적인 역할 수행 기술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 자아의 역할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자기 감찰 경향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처럼 청소년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높은 자기 감찰 경향이 청소년기 초기에는 우세하나, 청소년기 후기에는 낮은 자기감찰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Lapsley 등이 부분적으로 발달적 변인으로 보고 있는 Snyder(1979, 1987)의 자기감찰 개념은 시간 경과에 대해 상당히 일관성을 지니는 개인차 개념, 즉 개인의 특질 차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감찰 개념의 속성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 한 결과의 자기감찰 경향의 변화 유무와 그 변화의 정도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변화와 체계적 관계를 가지

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한편, 청소년기 동안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며(Elkind, 1974), 청소년들은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청소년 자신의 자아에 대한 내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에 매우 몰두하는 이 시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내적지향성(introspectiveness)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분산된 주의를 자신에 대한 사고와 감정 그리고 신체 상태에 집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Hansell, Mechanic & Brondolo, 1986). 이런 생성과정은 상정적 교환 이론(Mead, 1934 : Rosenberg, 1979)의 반영적 판정 과정(the process of reflected apprasals)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기 후기 이후부터 초기 청소년기에는 점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자신을 추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억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고, 감정과 신체 상태에 대해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Hansell 등(1986)은 이런 경향이 청소년기 초기에 급증하다가 그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청소년기 초기에 자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상과 청소년기의 많은 발달적 특성,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적 불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구인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가설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Hansell의 가설을 검증하고 자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상관 여부와 그 관계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부적 상관을 지니는 발달적 양식을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2.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

최근들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인지 영역이외에 자아 및 사회성 발달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제안되고 있다 (Lapsley, 1991, 1990; Lapsley, Fitzgerald, Rice & Jackson, 1989; Lapsley & Rice, 1987).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는 부모로부터의 분리 및 개별화과정이 포함된 자아정체감 형성이다. 즉, 청소년기는 개인적 정체를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자아의 독특하고 자기나름의 특이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의미있는 타자와 사회의 지원 아래서 정체를 형성하려는 욕구간의 긴장상태에 놓이는 시기다(Damon & Hart, 1988).

자아정체감을 자아성숙을 이끄는 문화과정과 인지적 성숙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Adams(1976)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 역시 청소년기의 인지적 성숙과 사회성 발달의 병행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적합한 새로운 심리적 구조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정체감 형성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수준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경험과 심리 역동적(intrapsychic)발달의 통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아중심성은 인지 발달의 4 단계에서 각각의 오지각(misperception)을 만들어내지만, 한편으로 각 단계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자아중심성은 세상에 대한 보다 성숙된 지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인지체계를 통해서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능성을 발달시키는데, 이런 사회적 경험은 자아중심성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체감을 확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관여상태(commitment)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와 타인들의 생각과 청소년들 자

신의 위치와 감정을 추상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수용력을 요구하는데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한 능력은 인지적으로 탈중심화되어 성숙된 인지적 체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체감은 개인이 완전히 탈중심화되어 자신을 타인과 구별된 개별적 존재로 인식할 때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정체감 형성과정에는 ‘개인적 독특성’에 관한 의식과 집단 이상을 향한 연대 의식이 모두 포함되는데(Erikson, 1968), 정체감 형성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지각에서부터 나온 자기지각과 자기 이미지로 이루어진다(Ganiere & Enright, 1989). 이런 사회적 자아에 대한 지각과정은 자신의 이미지와 타인의 지각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명확히 알게 하고 자신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분명한 지각 차이를 파악해서 보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대인관계 경험의 증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러 다양한 집단(가족, 또래, 사회)을 이해하며 자신의 자아가 사회적 대상들로부터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지를 이해하게 된다(Gallatin, 1975). 또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관심’ 때문에 대사회적 장면에서 자의식이 강해진다(O'Connor & Nikolic, 1990). 청소년들은 인생의 이시기에서 개별화(individuality)를 이루도록 요구받는다고 느끼고, 타인들이 자신들로부터 개별화의 표시를 찾기 위해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서 발달적 특징인 자신에 대한 관심(self-concern)이 증가하고 또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심을 혼동하게 될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 자신의 유사점에 대한 지나친 이해의 한쪽 끝은 경직된 동조를 유도하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에 대한 지나친 이해의 한쪽 끝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이끈다고 볼 수 있

다(Enright & Deist, 1979 ; Enright, Ganiere, Buss, Lapsley & Olson, 1983). 이렇게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곧 탈중심화로서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탈중심화에 대한 간접적인 표시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아정체감의 발달적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라 유사한 발달과정을 보여야 한다. 즉, 자아중심성의 극복과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확립 정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이 체계적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먼저 6개월 간격의 반복검사를 위해서, 1차 검사의 표집 대상을 서울 시내 4개 지역소재의 중학교 1학년(50명), 2학년(50명), 3학년(52명)과 고등학교 1학년(53명), 2학년(51명) 한 학급씩과 서울시 내 소재 2개 대학교 1학년 (107명) 중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학생을 표집하여 전체 363명이 1차 검사에 응답했다. 2차 검사에서 중학교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4명, 2학년 4명과 대학 1학년의 경우 47명이 참가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전체 304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측정도구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측정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1989)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을 사용하는데 이용한 상상속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 NIAS)와 개인적 우화척도(New Personal Fable Scale ; NPFS)를 사용했다. NIAS는 대상 관계상념(object relational ideation), 대인관계적 환상(interpersonal fantasies), 자아에 대한 이상적 상(visions of the self)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42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다. 문항의 예는 '내가 유명해 진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보는 일', '이성친구로부터 거절당하는 내모습', '위험에서 친구를 구하는 내모습' 등으로 개인들이 평소에 이런 내용의 백일몽을 얼마나 자주 상상하는지를 응답하게 했다. 여기서 1점은 '전혀 없다'에서 4점은 '자주 있다'의 정도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여 높은 총점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NPFS는 개인적 독특감(feelings of personal uniqueness), 전지전능함(omnipotence), 강인함(invulnerability)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46 문항의 3점 척도다. 그 문항의 예는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는 사건도 피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응답에서 1점은 '전혀 아니다'에서 3점은 '매우 그렇다'의 정도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높은 총점은 개인적 우화 상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alpha 신뢰도는 NIAS가 .91이고 NPFS는 .75였다. 1, 2차의 검사에서 전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1차 검사의 결과로 요인 분석과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내용이 문학적으로 차이가 나거나 구성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중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시켜, 2차 검사에서는 NIAS 21문항과 NPFS 19문항을 이용했고 최종분석에도 이 단축판을 사용했다.

또한 이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을 측정하고자 김인경과 윤진(1987,

1988)이 변안해서 사용했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Enright 외(1979)의 Adolescent Egocentrism Scale ; AES)를 함께 사용했다. 이 척도의 alpha 신뢰도는 .84였다. NIAS와 NPFS 그리고 AES간의 상관은 상상속의 청중이 .58이고 개인적 우화는 .51이었다.

2. 자신에 대한 관심 측정

자기감찰(self-monitoring)는 Snyder(1987)의 개정판 자기감찰 척도를 이용했다. 전체 18 문항으로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의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 응답이 높은 자기감찰 경향의 방향이 된다. 실제 분석에서 높고 낮은 자기감찰 경향 집단의 구분은 전체 표집의 중앙치(median=26)를 기준으로 높은 자기감찰 경향과 낮은 자기감찰 경향 집단을 나누어 분석했다. 이 척도의 alpha 신뢰도는 .74였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신뢰도를 .78로 보고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의 측정은 Hansell, Mechanic과 Brondolo(1986)의 내적 지향성(Introspectiveness)척도를 사용했다. 자신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신체상태에 대한 관심을 평정하도록 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1점은 ‘전혀 안한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내용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에 얼마나 주의를 두고 예민한가 그리고 자신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 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사고과정, 감정, 신체상태에 관심이 높고 자신의 동기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일상적 생활 사건에 깔린 의미를 찾으려 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크다. 그리고 직업이나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아 지향적(self-oriented) 활동을

선호한다. 반면에 내적 지향성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사고과정이나 감정에 관심이 적고 자신의 행동과 일에 더 주목하기보다는 환경적 조건과 제한점에 대해 평가적이며 현재지향적이고 자신의 동기와 내면적 삶에 대해 덜 의식적이고 덜 복잡하다. 그리고 자아체계에 대한 암시나 함의가 거의 없는 물리적 현상에 관심이 있어 비자아지향적(nonself-oriented) 활동을 선호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높고 낮은 내적 지향성 경향 집단은 전체 표집의 중앙치(median=40)를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자아정체감 측정

Hawley(1980)에 의해 표준화된 심리사회 발달 척도(The Measur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MPD)중의 일부를 사용했다. MPD는 Erikson 발달 단계에 기초한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건강도 지표로서, Erikson의 8단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양 측면의 갈등 해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긍정 측면 7 문항, 부정 측면 7 문항의 14문항이 사용되고 각 단계의 두 측면의 차이값으로 그 단계의 해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체 8단계 전반에 대한 발달 양식은 총 112 문항이고 본 연구에서는 5단계의 정체화립과 혼미 그리고 6 단계인 친밀감과 고림감의 28문항만을 사용했다. 이 척도의 alpha 신뢰도는 .64에서 .70이었고 신현아(1992) 연구의 신뢰도는 .60에서 .70이었다.

결 차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과 자기감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여부를 알아보고자 6개월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실시했다. 먼저 1차 검사에서

는 실시 요령을 숙지한 연구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와 자기감찰 척도 그리고 개인의 신상에 관계하는 질문들에 대한 집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였고 6개월후의 재검사 실시의 사실을 알렸고 질문지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과 연구자가 합의한 암호를 표시하여 2차 검사의 질문지 회수에서 동일인의 응답을 구별할 수 있게 했다. 2차 검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의 단축형과 자기감찰 척도 그리고 내적 지향성 척도와 사회심리 발달 척도를 함께 실시했다. 총 실시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결 과

연령증가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기감찰 그리고 내적 지향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했다. 이들 측정치들의 연령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연령 효과는 상상 속의 청중 영역($F(5,270) = 2.7250$, $p < .05$)과 개인적 우화 영역($F(5,264) = 3.7313$,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감찰 점수의 연령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반면 내적 지향성 점수의 연령 효과는 ($F(5, 281) = 5.6028$, $p < .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 증가에 따른 정적관계를 보였다.

[표 1]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기감찰, 내적지향성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중1	중2	중3	고1	고2	대1
상상속의 청중	47.35*	49.34*	48.91*	53.75*	48.04*	52.82*
	(11.05)	(11.81)	(11.25)	(10.33)	(11.05)	(7.79)
개인적 우화	33.66**	35.54**	31.79**	35.63**	31.89**	31.13**
	(7.80)	(7.10)	(5.00)	(6.58)	(7.11)	(6.74)
자기관리	25.87	26.15	26.33	26.74	26.10	25.60
	(2.71)	(2.82)	(2.23)	(2.59)	(2.12)	(2.29)
내적지향성	36.30***	36.88***	39.93***	43.60***	40.08***	43.92***
	(10.75)	(7.97)	(9.03)	(9.64)	(10.12)	(7.03)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표 2는 연령과 관련된 높고 낮은 자기감찰(median=26)과 내적 지향성(median=40) 점수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두 측정치들을 연령 (6)과 높고 낮은 경향성 (2)의 12개 집단에 대해서 chi-square 분석한 것이다. 자기감찰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연령증가에 따른 높고 낮은 자기감찰 경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지향성에서는 chi-square=20.40224, $p < .01$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청소년 초기에는 내적 지향성이 낮은 개인들이 많으나 후기로 갈수록 내적 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의 비도가 증가했다.

[표 2] 학년별 자기감찰 및 내적 지향성 상하집단의 빈도수

	중1	중2	중3	고1	고2	대1
자기관리	상 21	21	27	30	23	17
하 22	22	19	13	19	25	

내적지향성	상	17**	17**	21**	31**	26**	27**
	하	30**	33**	25**	17**	21**	11**

**p<.01

표 3에 높고 낮은 자기감찰과 내적 지향성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했다. 높은 자기감찰 경향의 집단이 낮은 경향 집단보다 상상속의 청중 점수($F(1,214)=2.7699$, $p(.1)$)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개인적 우화 점수($F(1,207)=13.8025$, $p(<.00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높은 내적 지향성 집단은 낮은 내적 지향성 보다 상상속의 청중 점수($F(1,281)=60.479$, $p(.001)$)와 개인적 우화 점수($F(1,266)=4.7540$, $p(.0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자기감찰 및 내적 지향성의 상하 집단의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 감찰		내적 지향성	
	상	하	상	하
상상속의 청중	50.85 (11.25)	48.35 (9.82)	53.37** (9.29)	45.67*** (9.49)
개인적 우화	34.68*** (7.02)	31.13*** (6.20)	36.25* (7.60)	34.30* (7.00)

()안은 표준편차 *p<.05, **p<.001

표 4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자기감찰 그리고 내적 지향성과 연령 변인의 상관 정도를 제시했다. 연령에 따른 3가지 변인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속의 청중에서만 연령 증가에 따른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감찰과 내적 지향성 모두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기감찰 및 내적 지향성의 상관

	2	3	4	5
1. 상상속의 청중	.3921**	.2358	.4804**	-.0894
2. 개인적 우화		.3249**	.3247**	.1902
3. 자기감찰			.1440	.2307
4. 내적지향성				.0789
5. 연령				---

** p<.01

표 5에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측정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점수와 자기감찰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측정 기간 동안의 변화량에 대한 유의도 검증에서 개인적 우화영역의 점수 변화($t(277)=7.46$, $p(<.001)$)만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감찰은 측정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1, 2차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기관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기감찰
1차	49.30 (10.43)	36.28*** (6.59)	26.11 (2.44)
2차	49.91 (10.80)	33.41*** (6.92)	26.73 (2.58)

()안은 표준편차

표 6과 7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성취정도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표6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자아정체 확립, 역할 혼미 변인으로서 자아정체 확립의 정도가 높고 역할 혼미가 적을 수록 상상속의 청중은 낮아졌다. 그리고 표 7의 개인적 우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자아 정체 확립, 역할 혼미, 고립감, 그리고 친밀감 대 고립감의 해결정도 변인으로서 자아정체 확립이 높고

역할 혼미가 적으며 고립감이 적고 친밀감과 고립감의 해결이 잘 될수록 개인적 우화는 낮아졌다.

[표 6]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정체감확립, 친밀감의 중다회귀분석

	중다상 관계수	R ²	Adjusted R ²	F
자아정체확립	.4747	.2254	.2176	29.240***
역할혼미	.5122	.2623	.2512	23.705***

*** p<.0000

[표 7] 개인적 우화에 대한 정체감확립, 친밀감의 중다회귀분석

	중다상 관계수	R ²	Adjusted R ²	F
자아정체확립	.4948	.2448	.2410	64.826***
역할혼미	.5972	.3566	.3507	55.156***
고립감	.6226	.3876	.3783	41.781***
친밀감 대 고립	.6371	.4059	.3938	33.643***
감의 해결정도				

*** p<.0000

논의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자신에 대한 관심 경향의 연령에 따른 발달양상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설명하는 관련 변인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 양식을 조사했다. 우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측정치는 고등학교 1학년을 정점으로 변화의 증감 양식을 보이는 청소년기 중기 이후의 절정 상태를 나타내므로 기존 이론과 서구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자아

중심성의 절정이 청소년기 중기 이후로 나타난 것과는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증가함을 보이는 반면, 자기감찰은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Lapsley 등(1987, 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높고 낮은 자기감찰 경향성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6개월 간격의 2회 검사에서의 그 변화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기감찰을 발달적 변인으로 보았던 Lapsley 등(1987)의 주장과 달리, 개인차 변인이라는 기준의 Snyder(1986)의 입장을 지지했다.

내적 지향성이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경향성이 더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낮은 내적 지향성 경향이 청소년기 후기에 우세하고 높은 내적 지향성 경향이 청소년기 초기에 우세함을 보여 Hansell 등(1986)의 가설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몇가지 가능한 이유는 첫째,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는 낮아져야 할 내적 지향성 경향들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고교 시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는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처한 사회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입시라는 극단적인 압력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감수성을 익히게 하는 경험을 부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발달과제를 해결할 기회가 자연되어서 더 어린 시기에 나타나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대학교 시기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 집단 이상의 집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발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내적 지향성에 대한 무선하의 Hansell 등의 가설화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

에 대한 내적인 사고와 감정, 신체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서 청소년기 자아중심 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적 지향성과 관련을 맺어 보았으나, 높은 내적 지향성 경향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이 포함되므로 이는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미성숙한 이해의 산물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해결 국면과 맥을 같이하는 속성이 될 수 있다.

세계로는 청소년기의 환경적 변화인 상급학교 진학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으로서 자기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때 자아중심성(청중들에 대해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리게 하는)도 함께 증가하여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상상속의 청중 현상이 연령 증가와 자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구성요소로서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실체로 자리하고 있음(Peterson, & Roscoe, 1991)을 보인 이런 결과에 대해 Steinberg (1981)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맥락(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직장)을 고려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경우 많은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네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피험자 표집에 있어서 무선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소재지의 지역적인 차이에서 오는 피험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무선화하지 못했으며 대학생의 경우 그 자체가 중고생에 비해 일반적인 대표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기힘들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때 대학생 집단은 청소년기 초기와 중기에 비교적 성공 경험을 많이 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 크고 인지적으로나 사회 환경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이 이론적으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란 미성숙의 상태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이 개

념이 포함하고 있는 심리 역동적 기제가 단순히 인지적 미성숙 이상의 내용을 포함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자아정체의 확립 대 역할혼미 및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심리 사회발달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위 구인인 개인적 우화와 정체감 확립 및 역할 혼미의 관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우화의 개념 내용에 청소년들의 독특감(uniqueness)이 포함되는데, 이런 상념의 생성과 정체 확립과정의 경험은 상호 관련될 수 있다. 청소년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자아 정체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고 선택하는 희열과 어려움 그리고 책임에 대한 숙고와 같은 매우 새롭고 결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발달과정의 새로운 인식들이 정체감 확립과 역할 혼미, 더 구체적으로는 정체감 위기 및 유예시기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징이 서로 관련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이 뒤늦게 표출된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입시라는 청소년기의 최대의 사회적 압력에서 해방되는 대학 1학년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기 발견을 위한 가장 자유롭고도 실험적이며 사회로부터 인가된 방황의 시기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의 시도로서 연구결과는 기존의 인지발달적 접근을 넘어선 사회 환경적 요인

들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 이해과정 등의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하고 실제적인 시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3.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의 특성과 부합되는 인지 영역이외의 개인 내적요인들, 자아 발달과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 자아발달 수준과 정체 확립의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아정체와 친밀감 형성과 자아중심성에 관계되는 사회적 능력의 세부 영역들, 즉, 개인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돋는 능력으로서 역할 수용 및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 관계(김인경과 장근영, 1992)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다 넓은 연령의 청소년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관심 즉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과 속고 등의 발달양식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자아 발달과 심리사회 발달에 미치는 사회 관습적 제도적 요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의 태도,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선호 정도 그리고 자신이외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와 인류에 대한 사회 의식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김인경, 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 – 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김인경, 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1992년도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초록집, 187–198.
- 신현아(1992). 심리사회적 성격발달 측정도구의 타당도 예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김인경, 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발달의 관계. *형사정책*, 4, 67–96.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 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 자기 검색척도와 자기 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G. R.(1976). Personal identity formation : a synthesis of cognitive and ego psychology. *Adolescence*, 7 151–164.
- Adams, G. R., & Jones, R. M.(1982). Adolescent egocentrism : Exploration into possible contribu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 25–31.
- Adams, G. R., & Jones, R. M.(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Anolik, S. A.(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43–454.
- Berndt, T.,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 640–648.
- Blos, P.(1962). *On Adolescence*, 58, 1101–1113.
- Dyk, P., & Adams G. R.(1987). The association between identity development and intimacy during

- adolescence : A theoretical treatis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 223–235.
-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lkind, D.(1974). *Children and adolescence : Interpretive essays on Jean Piaget*(2nd Ed.). NY : Oxford Univ. Press.
-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3–44.
- Enright, R. D., & Deist, S.(1979). Social perspective taking as a component of identity formation. *Adolescence*, 14, 517–522.
- Enright, R. D., & Ganiere, D. M., Buss, R., Lapsley, D. K., & Olson, L.M.(1983) Promofing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47–255.
- Enright, R. D., Lapsley, D. K., & Shukla, D.G. (1979).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Enright, R. D., Shukla, D. G., & Lapsley, D. K.(1980). Adolescent egocentrism 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01–116.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 Wiley.
- Gallatin, J.(1975). *Adolescence and individuality*. NY : Wiley.
- Ganiere, D. M., & Enright, R. D.(1989). Exploring three approaches t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283–295.
- Gray, W. M., & Hudson, L. M.(1984). Formal operations and the imaginary aud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19–627.
- Hansell, S., Mechaniç, D., & Brondolo, E.(1986). Introspectivenes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115–132.
- Hauser, S., Powers, S., Noam, G., Jacobson, A., Weiss, B., & Follansbee, D.(1984). Familial context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28, 459–468.
- Hawley, G. A.(1980). *MPD profession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Lapsley, D. K.(199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adolescent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 vol.2.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Sage press.
- Lapsley, D. K.(1991). Egocentrism theory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 Garland.
- Lapsley, D. K.(1985). Elkind on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C. & Jackson, S.(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 test of and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Lapsley, D. K., & Rice, K.(1987).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 integrative approaches*. NY : Springer.
- Lechner, C., & Rosenthal, D.(1983). Adolescents, self-consciousness, and the imaginary audience.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10, 289–305.
- Lerner, R. M.(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2nd ed.). NY : Random House.
- Maccoby, E.,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family.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 Wiley.
- Muuss, R. E.(1988). *Theories of adolescence*(5th ed.). NY : Random House.
- O’Conner, B. P., & Nikolic, J.(1990). Identity development and formal operations as sources of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49–158.
- Peterson, G. W., & Leigh, G. K.(1990). The family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In T. P. Gullotta, G. R. Adams, & R. M. Montemayor(Eds.), *Developing so-*

- 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Newbury Park : Sage.
- Petersen, G. W., & Rollins, B. C.(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B. Sussman, & S.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NY : Plenum.
- Riley, T., Adams, G. R., & Nielsen, E.(1984). Adolescent egocentrism : The association among imaginary audience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support and rej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401–417.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 Snyder, M.(1979). Self-monitoring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85–128.
- Snyder, M.(1987). *Public appearances/private realities : The psychology of self-monitoring*. NY : Freeman.
- Steinberg, L.(1981). Transformation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33–840.
- Steinberg, L. D., Greenberger, E., Jacobi, M., & Garduque, L.(1981). Early work experience : A partial antidote for adolescent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141–157.

Abstract

**The Multiple Parameters of Adolescence Egocentrism
on the New Theoretical Framework :
A Preliminary Study**

In-Kyung Kim. · Keun-young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s a preliminary study to extend the parameters related with adolescence egocentrism,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self-monitoring, introspectiveness, and ego-identity with the adolescence egocentrism. A total of 304 Korean boys from the age of 13 to 19 age were asked to answer the adolescence egocentrism scale, the self-monitoring scale, the introspectiveness scale, and the measur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olescence egocentrism was the highest for the 16 years old boys,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In self-monitoring, any developmental difference was not found, which does not also agree with the results of Lapsley et al.(1988), and the introspectiveness increased with age, which rejects the hypothesis of Hansell et al.(1986).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go-identity and the adolescence egocentrism showed that the adolescence egocentrism decreased and the identity is more achieved and so the role confusion is less and as isolation is less, the intimacy is higher, and the resolution of intimacy vs. isolation is higher. Thes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the parameters of the adolescence egocentrism should be extended to the variables related with the adolescence developmental tasks in the area of ego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hose of the cognitive development.